

'익산 행복 3대 비전 청사진'

정현을 익산시장, 표심 바탕 지역발전 당위성 확보

3선은 지방선거가 도입된 이래 지역 최하다
 시민들은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며 지역 발전의 당위성을 선명했으며 정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 시장은 선거 기간 국제철도 도시, 녹색정원 도시, 역사문화관광 도시 등 익산 행복 3대 비전을 앞세우며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
 정 시장의 구상하는 3대 비전 중 국제철도 도시 도약은 KTX익산역 광역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복합개발이 중심이다
 익산역 선상 부지에 환승지원시설과 함께 복합데파르트를 건립하고 익산역 내부 7만3000㎡ 규모의 철도차량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주거·상업시설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는 CIQ 기능을 추가, 국제철도시대 거점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

마지막 비전은 권역별 산재한 역사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이다.
 백제왕궁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 미륵사지 등 세계문화유산과 AR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문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해 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의 이 같은 비전에도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역에서 불거진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선거를 둘러싼 갈등, 인구 감소 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은 당연한 숙제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는 선거 기간 중 쟁점이 된 사항으로 이 문제의 해법은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라며 "인구문제 역시 오는 2026년이면 30만명을 되찾아 호남 3대 도시의 위용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체감형 폭염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안전한 여름 보내요"

익산시, 폭염 대책 추진... 고령층 논밭 작업자 등 집중관리

익산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체감형 폭염 종합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도래함에 따라 시민 건강 보호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9월까지 폭염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올해 폭염대책 중점 방안으로 3대 취약분야(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위주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를 집중관리할 예정으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양산 쓰기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늘막 150개(수동식 149개, 스마트01개)가 해당도도 신호등 주변에 설치되어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한다. 스마트 그늘막 6개소를 추가 설치 해, 자외선지수가 높은 10월까지 중점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보건지소, 금융기관, 스마트 버스승강장, 야외정자 등 506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 운영한다.
 또한 폭염특보 발효 시 시민의 소중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안전과 장을 중심으로 폭염상황관리 T/F팀을 신속히 가동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취약계층과 재난도우미에게 폭염행동요령 문자가 발송되고, 자동마을방송시스템과 재해 문자전광판으로 폭염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재난도우미로 지정돼 있는 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건강증진서비스 인력을 활용해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활동도 추진한다. 재난도우미는 특보 시 무더위쉼터 및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을 체크하고, 안부 전화를 하는 등 각종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평년 이상의 기온이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제9대 의회 개원 준비 박차

6·1 지방선거, 의원 25명 당선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9대 익산시의회의원 25명(지역구 22명, 비례대표 3명)이 당선됐다. 당선인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20명(지역구 18명, 비례대표 2명), 국민의힘 1명, 진보당 1명이며, 무소속은 3명이며, 남성 15명, 여성 10명이며, 연령대는 30대 3명, 40대 1명, 50대 14명, 60대 이상 7명으로 구성됐다.
 당선인 중 재선 이상 의원은 박철원, 최중오, 장경호, 김충영, 박종대, 강경

숙, 조남석, 조규태, 오임선, 한동연, 김경진, 김진규, 유재구 총 13명이다.
 제9대 익산시의회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4년이며, 오는 7월 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전반기 의장단 선임위원장을 선출한 후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시민의 민원해결 등 시의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임시회 4회, 정례회 2회 총 여섯 번의 회기가 운영될 계획이며,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김완수 의회사무국장은 "제9대 개원 준비를 위해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 전문가 초빙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날 선발 절차를 마친 정책지원관 6명을 6월 중순 채용해, 7월에 출범하는 제9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개원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보릿대 불법소각 대응책 상호 협력 추진

군산시가 해마다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다.
 시는 해마다 보리 수확철이면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관부서 및 관련 경영체와 협의해 예방 홍보 및 감시, 단속으로 나눠 단계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방사업으로는 기존 보릿짚 환원사업과 더불어 영농부산물 일괄 수거 사

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수거 물량은 축사갈래, 가축파이 등으로 재사용된다. 농가에서는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선택지 하나가 늘어난 셈이다.
 시는 보릿대 소각금지 현수막 게시와 당초 5월 말까지 운영계획이었던 환경감시단을 1개월 연장에 예방사업에 대한 홍보와 감시활동 강화로 소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러한 예방사업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농민 직불금, 공익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등 기존의 제도 위주의 단속보다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된다.
 서정식 자원순환과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길 바라며,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산물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직업훈련생 모집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오는 13일부터 관내 실직 및 구직자에게 재취업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태양광, 소용력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인 와이에이치에너지(주)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수요맞춤형 과정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해 교육 수요 시 해당기업으로 채용연계까지 이어지게 된다.
 와이에이치에너지(주)는 새만금 국

가산업단지(2공구)내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공장으로 4만㎡ 용지에 163억원을 들여 100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하반기 인력채용 수요에 맞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태양광, 소용력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과정(모집인원 : 20명, 훈련기간 : 6.13~7.29, 35일)은 교육장소까지 셔틀버스 운영과 중식지원 등 전액 무료 교육이며, 모집은 오는 8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임업·산림 직불금 신청·접수

앞으로 임업직불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군산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오는 10월 1일부터 임업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직불금을 지급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임업직불금을 접수할 예정으로, 지급 대상은 접수일 이전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한다.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이때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전기시설물 정밀안전점검 펼쳐

익산시는 전기로 인한 갑절과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사 특별 안전점검을 펼친다.
 시는 2일부터 28일까지 분청 및 읍·면·동 청사 건물에 대해 전기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고·저압 전기설비 절연저항·누설전류 측정, 접지저항 점검,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 시험 등이며 전기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방문 민원인이 많은 읍·면·동 청사에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가를 점검반으로 편성해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결미한 사항은 자체 보수할 예정이며 그 외에는 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